

진주시 도시재생사업지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 집단기억 이론을 중심으로 -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termination of a Business Indicators for Urban Regeneration Based on Jinju City - Focused on collective memory theory -

이 소 영*
Lee, So-Yeong

주 희 선**
Joo, Hee-Sun

Abstract

It has been long time since the local small-and-medium cities had lost their vitality due to the progress of aging, economic decline in urban areas, the lack of new growth engines, and the declining population in Korea. In addi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creation of new urban areas and the transfer of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the outskirts of a city have accelerated the decline of old downtown. Rather, local small-and-medium cities would have a problem to make urban regeneration impossible. Under the recognition of such problems, individual self-governing entities have come up with numerous policies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small-and-medium cities, but it is a condition that the effect of their efforts falls short of expectations, such as the space of the similar style, which has been widespread in developed countries, simple restoration, and a few structural changes. In this regard, the part to be realized anew is to enhance the attractiveness of small-and-medium cities.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raise the overall attractiveness in a short time in reality. To select local assets to be utilized in urban regeneration, it is judged that gathering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positive outcome for the purpose of the revitalization of local small-and-medium cities by finding the factors which can remind us of the collective memory of Jinju city and selection the critical factors to determine a detailed project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주요어 : 집단기억, 도시재생, 지방중소도시

Keywords : Collective Memory, Urban Regeneration, Local Small-and-medium Citie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현재 지방중소도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중소도시들은 중심지 기능 상실과 제반 생활 서비스시설의 미비로 인해 다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2014년에 13개 선도 지역 사업 추진, 2015에 주거환경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2016년에 33개의 일반지역 선도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8년 68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¹⁾ 또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는 ‘집단기억’은 인간의 공통된 경험적 가치요소를 공유하며 과거로부터 전수된 한 공동체의 기억을 보다 직관적으로 사람

들에게 보여주려는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내부적 시각으로 집단기억을 해석하여 재생사업지표 요소를 추출해본 후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을 위한 가치 지향점을 파악하여 기초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진주시 도시재생사업지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주민들의 ‘기억’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집단기억의 요소를 추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방중소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내용적 범위로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첫째, 문헌 수집을 통해 집단기억과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집단기억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재생사업 지표로 삼을 요소들을 추출 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요소들을 구성하여 지역 거주민들의 기억에 대한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구도심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억을 적용한 재생사업요소를 도출하였다.

*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졸업, 주저자

**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sJoo@gnu.ac.kr)

1) 이왕건,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2017, pp.17-24

2. 이론적 논의

2.1 집단기억의 개념

집단기억은 공간의 장소성 또는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느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그 장소와 다른 장소를 구별 시키므로 특별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소이다. 때문에 거주지 자체는 거주자의 집단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결집체라 할 수 있다. ‘문화 기억론’을 제안한 얀 아스만(Jan Assmann)은 같은 공간이라도 향유하는 사람에 따라 그곳에 대한 기억이 경험적 혹은 문화적 기억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기억의 장소’라는 총서를 통해 ‘기억담론’을 제기하였다. 현대까지 역사는 기억으로부터 변화되어 온 인식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노라가 찾아낸 기억의 장소는 물질적 유형과 추상적 유형 그리고 전달매체로 구분한다<Table 1>. 이탈리아 도시사상가인 알도 로시(Aldo Rossi)는 구조적 맥락에서 도시의 정신은 공간에 남아 있는 구체적 증거와 역사 그리고 공간을 구별하는 특징이 되면서 도시의 기억이 된다고 주장하였다.²⁾

이러한 집단기억을 종합해 본다면,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적 구성의 틀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Table 1. Type of place for Pierre Nora’s memory

| Type of classification | A typical example |
|------------------------------|--|
| Memorial places, Attractions | Versailles, Louvre, Chartres Cathedral, The Eiffel Tower |
| Symbol apparatus | Le drapeau tricolore, Jeanne d’Arc, Anniversary, Road |
| Transmission medium | Textbook, Autobiography, Diary, Books |

2.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집단기억 관련 도시재생 연구와 도시재생 관련 장소성형성 도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집단기억과 관련된 도시재생연구로 조은영(2016)은 집단기억과 장소의 기억 개념을 사례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손호중 외(2017)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적용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재생요인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도시재생 관련 장소성형성 도출 연구로 임승빈 외(2012)는 장소기억을 통해 장소성 형성의 구조를 도출하여 공원과 도시설계에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박미현 외(2013)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내 여가공간 방문자와 지역주민의 장소성 포지셔닝을 분석하였다. 박현욱(2015)은 도시정체성의 형성요인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형성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 연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종호(2015)는 도시정체성은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형성요인의 인지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Table 2>. 선행연구 검토결과, 집단기억을 이용한 장소에 대한 분석이나 장소 정체성의 구조를 도출한 연구들은 진행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기억의 요소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활용

2) 손호중·정용혜, 집단기억을 통한 도시재생요인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1), 2017, pp.823-836

가능성을 파악한 뒤, 도시의 재생과 회복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을 했으며, 또한 거주민들이 원하는 집단기억의 요소를 이용하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효율적인 재생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Table 2. Previous studies classification

| classification | Research Subject | Contents |
|------------------------------|---|--|
| Cho Eun Young (2016) | Analysis of urban memory preservation methods | Discuss examples of the Seoul Future Heritage Project through collective memory |
| Son Ho Jung et al. (2017) | Preferenc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Factors through Collective Memory | Preferenc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Factors in order to identify Approaches to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in Jecheon City |
| Lim Seung Bin et al. ((2012)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Identify and Satisfaction | Suggesting implications for urban design by deriving structure of formation of place ability through Seonyudo and place memory of Seoul forest |
| Park Mi Htun et al. (2013) | Spatial Positioning in Urban Space | Analysis of the positioning of leisure space visitors and local residents in the city for local residents |
| Park Hyun Wook (2015)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through Factors of Urban Identity | Proposal of policy research through recognition of necessity of forming factors of urban identity and analysis of forming factors |
| Lee Jong Ho (2015) | Urban Identity Formation Factor Analysis | Suggesting that urban identity va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perception |

3. 분석의 틀 설정

3.1 진주시 도시재생 현황

현재 진주시의 기존 구도심지역은 구시가지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도시새뜰마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진주 옥봉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16년에는 비봉마을이 선정되었다. 옥봉지구는 총 사업비 64억 원을 들여 2019년 6월에 완료됐다. 비봉지구는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³⁾ 상평산업단지는 정부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15년부터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반 시설정비, 구조고도화와 도시형 산업의 업종 전환을 통하여 2025년까지 약 246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⁴⁾ 또한 2019년 진주시는 옥봉지구와 비봉지구를 이어 유곡지구가 세 번째로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었다. 사업

3) 한국농어촌방송, 2019년 04월 19일자 보도자료

4) 신아일보. 2018년 02월 13일자 보도자료

비 28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⁵⁾

3.2 분석의 틀 설정

지역사회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필요하다. 물리적 정비 위주의 도시재생 또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지표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찾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재생에 있어 집단기억의 활용은 수많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요인별로 다양한 세부 요소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검토된 요소들이 도시재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계가 규명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문헌 및 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6가지 집단기억 관련 지표로 나누었고 그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종합하였다. 종합된 세부 항목들 중 중복 요인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연구에서 사용 할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도시재생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독립변수는 수집된 요인들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설정하였으며, 각 항목조사를 토대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 후, 활성화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4. 실증 분석

4.1 설문조사 개요

거주민의 집단기억을 살펴보기 위해 진주시 구도심 지역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부한 105부 중 유효 표본인 100부를 분석하였다<Table 3>. 설문은 판단표본추출 1:1 설문조사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Table 3. Survey contents

| Classification | Survey contents |
|----------------|---|
| Survey subject | Residents of the old town of Jinju |
| Survey Content | - Decline of Jinju City and City Regeneration - Necessity of six memory elements each -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collective memory |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면담을 3회 실시하였다(2019.04-2019.06). 진주시에는 총 14개 행정 동이 있으나, 그 중에서 상봉동, 성북동, 중앙동, 천정동 네 곳에서 인구유출이 심하고,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면담 결과, 지역

5) 한국농어촌방송, 2019년 04월 04일자 보도자료

적 쇠퇴가 심각하다고 언급한 위의 4개 동만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다. 성별의 비율은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는 30-40대가 가장 높았다. 직업군은 자영업의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지는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기간은 15년 이상 25년 미만 거주민의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다<Table 4>.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Classification | | Frequency | Percentage |
|--------------------|----------------------------|-----------|------------|
| Gender | Man | 44 | 41.9 |
| | Woman | 56 | 53.3 |
| Age | under the age of 20 | 9 | 8.6 |
| | 20 to 29 years old | 21 | 20.0 |
| | 30 to 39 years old | 23 | 21.9 |
| | 40 to 49 years old | 22 | 21.0 |
| | 50 to 59 years old | 15 | 14.3 |
| | over 60 years of age | 10 | 9.5 |
| Career | A public officer | 9 | 8.6 |
| | Self-employment | 33 | 31.4 |
| | A clerk for a firm | 12 | 11.4 |
| | A professor/teacher/labour | 0 | 0 |
| | The lady of the house | 16 | 15.2 |
| | Student | 24 | 22.9 |
| Current residence | Etc | 6 | 5.7 |
| | Sangbong-dong | 21 | 20.0 |
| | Seongbuk-dong | 31 | 29.5 |
| | Jungang-dong | 20 | 19.0 |
| | Cheonjeong-dong | 25 | 23.8 |
| Residence Period | Etc | 3 | 2.9 |
| | Less than 5 years | 7 | 6.7 |
| | 5 to 15 years | 15 | 14.3 |
| | 15 to 25 years | 36 | 34.3 |
| | 25 to 35 years | 12 | 11.4 |
| | 35 to 45 years | 21 | 20.0 |
| More than 45 years | 9 | 8.6 | |

진주시의 쇠퇴정도에 대한 빈도분석결과, 쇠퇴(23.8%), 조금 쇠퇴(35.2%), 조금쇠퇴(35.2%)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대체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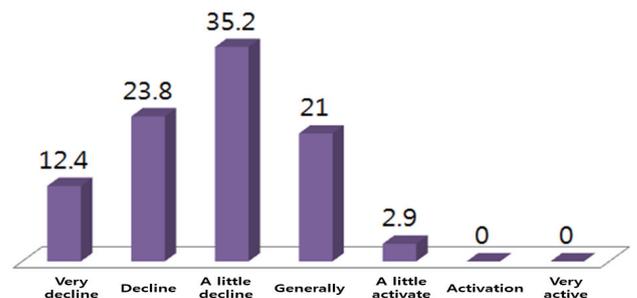


Fig. 1. Investigation of Decline in Jinju

4.2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황기원(1996)⁶⁾, 계기석(2001)⁷⁾, 최재현(2005)⁸⁾, 이종호(2015)⁹⁾, 김평수(2016)¹⁰⁾, 박찬호(2017)¹¹⁾, 정나은(2017)¹²⁾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여섯 가지 큰 틀의 지역적 요소, 역사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 경관적 요소, 산업적 요소, 경제적 요소의 집단기억 항목을 나누고 세부 기억 항목들을 종합하였다 <Table 5>.

Table 5. Evaluation item variable setting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
|--|------------------------------|---|
| Necessity of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in Jinju City | Local memory element | - Difference - Subjectivity - Power relation |
| | Historical memory element | - Historical custom - Historical figure - Historical sites - Ruins - Historical movement |
| | Sociocultural memory element | - History culture - Art culture - Living culture - Cultural event - Community organization - Local storytelling |
| | Landscape memory element | - Landscape - Natural landscape - Cityscape - Public design - Building |
| | Industrial memory element | - Tourism industry - Handicraft manufacturing - High-tech industry - Agricultural industry - Service industry |
| | Economic memory element | - Potential capacity - Income level - Investment opportunity -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Economic structure - Resource utilization |

- 6) 황기원,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한국조경학회지, 61(1), 1996, pp.110-113
- 7) 계기석·진영효, 도시정체성과 도시발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vol 229, 2001, pp.3-14
- 8) 최재현, 황해공동권의 구상과 서해안 도시클러스터 전략, 地理教育論集, vol 49, 2005, pp.368-383
- 9) 이종호·박현욱, 도시정체성 형성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52, 2015, pp.74-83
- 10) 김평수·윤홍근·장규수, 문화콘텐츠산업론,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pp.24-69
- 11) 박찬호·이상호·김태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구조 정립 및 적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52(4), 2017, pp.187-199
- 12) 정나은, 도시정체성 형성 요소로서의 역사문화콘텐츠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7, pp.46-51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항목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관적, 산업적, 경제적 기억 항목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하나의 항목에 둘 이상의 개념 예측변수들의 집합에 대한 신뢰성 측정에 사용되며, 계수 범위는 0과 1사이로 나타난다.

신뢰도 분석 결과, 지역적 요소의 α 값은 0.860, 역사적 요소의 α 값은 0.852, 사회·문화적 요소의 α 값은 0.907, 경관적 요소의 α 값은 0.869, 산업적 요소의 α 값은 0.870, 경제적 요소의 α 값 0.906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며 각각의 세부항목 또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Table 6.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 classification | | Cronbach α with deleted entries | Reliability |
|------------------------------|-------------------------------|--|-------------|
| Local memory element | Activation necessity | .787 | .860 |
| | Difference | .837 | |
| | Subjectivity | .827 | |
| | Power relation | .830 | |
| Historical memory element | Activation necessity | .809 | .852 |
| | Historical custom | .812 | |
| | Historical figure | .827 | |
| | Historical sites | .839 | |
| | Ruins | .832 | |
| Sociocultural memory element | Activation necessity | .884 | .907 |
| | History culture | .888 | |
| | Art culture | .892 | |
| | Living culture | .898 | |
| | Cultural event | .902 | |
| | Community organization | .891 | |
| Landscape memory element | Activation necessity | .819 | .869 |
| | Landscape | .877 | |
| | Natural landscape | .857 | |
| | Cityscape | .824 | |
| | Public design | .845 | |
| | Building | .850 | |
| Industrial memory element | Activation necessity | .821 | .870 |
| | Tourism industry | .825 | |
| | Handicraft manufacturing | .861 | |
| | High-tech industry | .856 | |
| | Agricultural industry | .872 | |
| Economic memory element | Activation necessity | .889 | .906 |
| | Potential capacity | .891 | |
| | Income level | .892 | |
| | Investment opportunity | .890 | |
| |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896 | |
| | Economic structure | .895 | |
| Resource utilization | .888 | | |

신뢰도 분석 후,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적 요소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F값은 52.697으로 도출되었고 유의확률은 0.000(<0.05)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충족하고 있다. R²값은 0.622로 약 62.2%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갖추고 있다. 각각 변수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값은 1.913로 잔차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변수들의 계수해석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 변수는 거주지에 대한 차이성, 주관성, 권력관계 세 가지 모두 도출되었다. 회귀계수를 표준화하여 중요도를 나타낸 β 계수로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 경우, 거주지에 대한 권력관계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에 대한 차이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사적 요소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F값은 29.644이며, 유의확률은 0.000(<0.05)으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충족하고 있다. 각 변수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값은 1.730로 잔차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R²값은 0.621로 약 61.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변수들의 계수해석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 변수는 역사적 관습과 역사적 운동으로 도출되었고 제거된 변수로는 역사 인물, 역사 현장, 유적의 세부 기억요인이 제거되었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 경우, 역사적 관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역사적 운동이 가장 낮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문화적 요소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F값은 32.472이며, 유의확률은 0.000(<0.05)으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충족하고 있다. R²값은 0.707로 약 70.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각 변수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값은 1.840로 잔차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변수들의 계수해석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 변수는 역사문화와 예술문화로 도출되었고, 생활문화, 문화이벤트, 지역사회 조직, 지역 스토리텔링의 세부 기억 요인이 제거되었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 경우, 역사문화, 예술문화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로 분석되었다.

경관적 요소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F값은 45.999이며, 유의확률은 0.000(<0.05)으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충족하고 있다. R²값은 0.710으로 약 71%의 설명력을 가지며, 각 변수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값은 1.862로 잔차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변수들의 계수해석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 변수는 가로경관, 시가지경관, 공공디자인으로 도출되었고, 자연경관, 건축물의 세부 기억 요인이 제거되었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 경우, 시가지 경관, 공공디자인, 가로경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적 요소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F값은 49.014이며, 유의확률은 0.000(<0.05)으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충족하고 있다. R²값은 0.722로 약 72.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각 변수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값은 2.288로 잔차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변수들의 계수해석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 변수는 관광과 농산물로 도출되었고, 수공업, 첨단산업, 서비스업의 세부 기억 요인이 제거되었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 경우, 관광산업에 관한 기억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농산업에 관한 기억요인이 그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요소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F값은 29.414이며, 유의확률은 0.000(<0.05)으로 유의성을 충족하고 있다. R²값은 0.655로 약 65.5%의 설명력을 갖추며, 각 변수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값은 1.868로 잔차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변수들의 계수해석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 변수는 투자의 기회와 지역자원 활용으로 도출되었고 잠재능력, 소득수준, 국제적 경쟁력, 경제구조의 세부 기억 요인이 제거되었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 경우, 지역자원의 활용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투자의 기회가 가장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Local memory element | | | | |
|-------------------------|--|------|------------------------------|-----------|
| Regression coefficients | Unstandardized | β | T-Value (significance level) | Tolerance |
| | B | | | |
| Constant | -.270 | - | -.608 (.544) | - |
| Difference | .332 | .272 | 3.379 (.001) | .608 |
| Subjectivity | .384 | .308 | 3.734 (.000) | .580 |
| Power relation | .392 | .360 | 4.504 (.000) | .617 |
| Summarization of model | R ² : 0.622, F-Value : 52.697, P-Value : 0.000 Durbin-Watson : 1.913 | | | |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continuously)

| Historical memory element | | | | |
|---------------------------|--|------|------------------------------|-----------|
| Regression coefficients | Unstandardized | β | T-Value (significance level) | Tolerance |
| | B | | | |
| Constant | -.271 | - | -.537 (.593) | - |
| Historical custom | .630 | .562 | 6.652 (.000) | .578 |
| Historical figure | .047 | .039 | .458 (.648) | .571 |
| Historical sites | .174 | .127 | 1.605 (.112) | .662 |
| Ruins | .006 | .005 | .064 (.949) | .613 |
| Historical movement | .254 | .223 | 2.928 (.004) | .710 |
| Summarization of model | R ² : 0.612, F-Value : 29.664, P-Value : 0.000 Durbin-Watson : 1.730 | | | |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continuously)

| Sociocultural memory element | | | | |
|------------------------------|--|---------|------------------------------|-----------|
| Regression coefficients | Unstandardized | β | T-Value (significance level) | Tolerance |
| | B | | | |
| Constant | -.010 | - | -0.026 (.980) | - |
| History culture | .438 | .430 | 5.090 (.000) | .440 |
| Art culture | .336 | .317 | 3.965 (.000) | .494 |
| Living culture | -.006 | -.006 | -.072 (.943) | .513 |
| Cultural event | .141 | .131 | 1.810 (.074) | .602 |
| Community organization | .075 | .075 | .852 (.396) | .404 |
| Local storytelling | .052 | .054 | .642 (.523) | .447 |
| Summarization of model | R ² : 0.707, F-Value : 32.472, P-Value : 0.000 Durbin-Watson : 1.840 | | | |

| Landscape memory element | | | | |
|--------------------------|--|---------|------------------------------|-----------|
| Regression coefficients | Unstandardized | β | T-Value (significance level) | Tolerance |
| | B | | | |
| Constant | -.150 | - | -.367 (.715) | - |
| Landscape | .187 | .162 | 2.479 (.015) | .722 |
| Natural landscape | .047 | .041 | .593 (.555) | .628 |
| Cityscape | .427 | .419 | 4.957 (.000) | .432 |
| Public design | .406 | .385 | 5.111 (.000) | .544 |
| Building | .028 | .025 | .333 (.740) | .541 |
| Summarization of model | R ² : 0.710, F-Value : 45.999, P-Value : 0.000 Durbin-Watson : 1.862 | | | |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continuously)

| Industrial memory element | | | | |
|---------------------------|--|---------|------------------------------|-----------|
| Regression coefficients | Unstandardized | β | T-Value (significance level) | Tolerance |
| | B | | | |
| Constant | -.561 | - | -1.294 (.199) | - |
| Tourism industry | .600 | .587 | 7.085 (.000) | .430 |
| Handicraft manufacturing | .103 | .092 | 1.376 (.172) | .655 |
| High-tech industry | .059 | .052 | .751 (.455) | .609 |
| Agricultural industry | .213 | .161 | 2.559 (.012) | .744 |
| Service industry | .149 | .127 | 1.673 (.796) | .510 |
| Summarization of model | R ² : 0.723, F-Value : 49.014, P-Value : 0.000 Durbin-Watson : 2.288 | | | |

| Economic memory element | | | | |
|-------------------------------|--|---------|------------------------------|-----------|
| Regression coefficients | Unstandardized | β | T-Value (significance level) | Tolerance |
| | B | | | |
| Constant | -.231 | - | .545 (.587) | - |
| Potential capacity | .000 | .000 | .002 (.998) | .450 |
| Income level | .154 | .164 | 1.819 (.072) | .457 |
| Investment opportunity | .314 | .293 | 3.406 (.001) | .501 |
|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024 | .021 | .242 (.089) | .506 |
| Economic structure | -.104 | -.100 | -1.153 (.252) | .495 |
| Resource utilization | .569 | .550 | 6.134 (.000) | .462 |
| Summarization of model | R ² : 0.707, F-Value : 32.472, P-Value : 0.000 Durbin-Watson : 1.840 | | | |

마지막으로, 활용 가능한 집단기억의 요소로서 6가지 요소들 중 산업적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게 도출되었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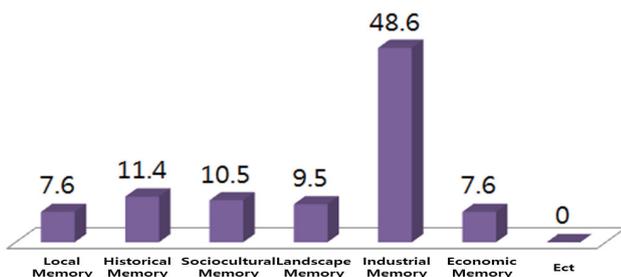


Fig. 2. Highly usable group memory elements

5. 결론

5.1 분석종합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는 집단기억을 활용하여 지방중소도시인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용자 설문 결과의 빈도분석 결과 거주민 대부분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쇠퇴되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 기억이라는 요소를 활용함에 있어 지역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관적, 산업적, 경제적 요소의 여섯 가지 상위 항목 중 산업적 요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여섯 가지 상위 항목에서 서른 개의 하위 항목을 추출하여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소들을 파악

Table 8.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independent variables with significant influence on dependent variables

| Dependent variable | Item Classification |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 | Importance | Evaluation |
|----------------------|------------------------------|----------------------------------|------------|------------|
| Activation necessity | Local memory element | Differences in residence | .272 | ● |
| | | Subjectivity of residence | .308 | ● |
| | | Power relation to residence | .360 | ● |
| | Historical memory element | Historical custom | .562 | ● |
| | | Historical movement | .223 | ● |
| | Sociocultural memory element | History culture | .430 | ● |
| | | Art culture | .317 | ● |
| | Landscape memory element | Cityscape | .419 | ● |
| | | Public design | .385 | ● |
| | Industrial memory element | Tourism industry | .587 | ● |
| | | Agricultural industry | .161 | ○ |
| | Economic memory element | Investment opportunity | .293 | ● |
| | | Resource utilization | .550 | ● |

● Very important ● Important ○ Generally

한 결과, 지역적 기억 요소 항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에 대한 차이성’, ‘거주지에 대한 주관성’, ‘거주지에 대한 권력관계’ 3가지로 도출되었다. 역사적 기억 요소 항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사적 관습’, ‘역사적 운동’ 2가지로 도출되었다. 사회·문화적 기억 요소 항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사문화’, ‘예술문화’ 2가지로 도출되었다. 경관적 기억 요소 항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가지경관’, ‘공공디자인’ 2가지로 도출되었다. 산업적 기억 요소 항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광’, ‘농산물’ 2가지로 도출되었다. 마지막 경제적 기억 요소 항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투자의 기회’, ‘지역자원의 활용’ 2가지가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중요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진주시 시민들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역사적 관습, 역사문화, 시가지경관, 관광, 지역자원 활용으로 나타나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세부 요인으로 판단가능하다. 거주지에 대한 차이성, 거주지에 대한 주관성, 거주지에 대한 권력관계, 역사적 운동, 예술문화, 공공디자인, 투자의 기회 요소들도 도시재생 활성화에 중요한 세부 요인으로 구분되며, 농산물은 보편적인 세부요인으로 구분 가능하다. 즉, 풍습, 관행, 의례, 놀이, 상업 등의 역사적 관습에 대한 기억 또는 지역자원 활용 기억을 통한 관광과 같은 요소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어 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중소도시 도시재생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세부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진주시뿐만 아니라 쇠퇴해가는 모든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매력적인 요소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구의 주제와 목적에 있어 진주라는 대상지와 집단기억의 이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어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이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대상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이론과 개념으로 회귀한 후 분석을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재생 연구에서 집단기억에 대한 개념은 정립된 이론이기 보다는 생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담론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중소도시인 진주시의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선정 과정에서 보다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고려되지 못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변수들이 보통 수준 이상의 유의한 값을 나타냈지만 회귀분석 과정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있어 설문문이 가장 중요한 연구방법이었으나 표본의 수가 적은 것과 설문 응답자들에게 인문·사회적 부분인 집단기억의 개념 활용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 설문을 통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요인을 보다 자세하게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기억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개념인 만큼 분석하기 위한 여러 추가적인 지표들을 찾고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계기석·진영호, 도시정체성과 도시발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29, 2001
2. 김평수·윤홍근·장규수, 문화콘텐츠산업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3. 박찬호·이상호·김태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구조 정립 및 적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52(4), 2017
4. 손호중·정용해, 집단기억을 통한 도시재생요인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1), 2017
5. 신아일보, 2018년 02월 13일자 보도자료
6. 이왕건,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2017

7. 이종호·박현욱, 도시정체성 형성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52, 2015
8. 정나은, 도시정체성 형성 요소로서의 역사문화콘텐츠 특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9. 최재현, 황해공동권의 구상과 서해안 도시클러스터 전략, 지리교육논집, 49, 2005
10. 한국농어촌방송, 2019년 04월 04일자 보도자료
11. 한국농어촌방송, 2019년 04월 19일자 보도자료
12. 황기원,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한국조경학회지, 61(1), 1996

접 수 일 자 : 2019. 10. 08

게재확정일자 : 2019. 11. 08